

## ■ 편집후기(編輯後記)

◆ 편집규정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번 56집에는 음운론(1편), 어휘론(1편), 사회언어학(3편), 일본어사(1편), 일본어교육(1편), 기타일본어학(1편)의 총 8편의 다양한 일본어 연구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귀중한 연구논문을 투고해주신 회원님들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계속평가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집행부 및 편집이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李)

◆ 이번 56집에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일 대조연구를 비롯하여, 일본어 중간언어에서의 *noda*의 특성과 음운론, 일본어사, 어휘론의 치밀하고 자세한 연구 등이 특히 눈에 띈다. 이들 논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분석, 고찰하는 연구의 중요성과 학문적 열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고유의 장으로서 본 학술지가 이용되기를 바란다. (鄭)

◆ 이번 56집에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드라마 타이틀의 줄임말 형성 패턴을 비롯하여 가나사본에 나타나는 한자「候」의 생략자체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흥미로운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귀중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는 학회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姜)

◆ 56집에 옥고를 투고해 주시고 기꺼이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과 편집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우리학회 학술지인 『日本語學研究』의 학술지계속평가를 준비하면서 우리학회와 학술지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함께 준비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학술지가 되길 기대한다. (金)

◆ 55집에 이어 56집 실무를 담당하며 서식규정과 기한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해주시는 투고자, 심사자 여러분께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깊어짐을 느꼈다. 이번 호는 계속 평가와 맞물려 시간적으로도 조금은 벅찬 일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과 보람과 연대감은 앞으로 학술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辛)

(2018/06/14)